

들어가면서

1. 마태복음 구조상 5 개 담화문 마지막—특징 종말론적 이해 (마태 24-25 장//마가 13 장//누가 21 장)
2. 마태복음에만 있는 3 개 이야기 (이 중 2 번째, ‘달란트 비유’는 눅 19:11-27 에 다른 형태로 전수).

A. 열처녀 비유(25:1-13) => 세상/삶에는 끝이 있다

- 질문: 신랑(νυμφίος)은 한 사람인데, 처녀(παρθένος) 열 명? (신랑, 신부 얘기가 아님! => 비유)
- 신랑=> 이 시대의 끝/예수 재림(presence, parousia); 처녀=>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/교회
- 준비된 삶. “졸지 말고, 깨어 있으라?”=> No! 전부 졸았다(5 절). 문제는 준비된 삶/ 규모 있는 삶. 고로 깨어 있으라는 잠자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, alertness/preparedness! (24:42, 50)
- 만일 ‘예수 믿고 천국가는 것’이 전부라면,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된다는 말=> 일리 있나? (그렇지 않다는 뜻=> 도마복음, 천국이 하늘에 있을진대,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다) => 시와 때를 계산하고 있는 말세론자들에게 경고!

B. 달란트 비유(25:14-30) => 나와 세상

- 먼저 생각할 점: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어졌다. 가치의 차이는 초점이 아니다.
- 달란트(τάλαντον, scale/balance=> 약 30 kg). 금, 은, 동 아무거나 지칭될 수 있으나,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은으로 취급(silver talent =6000 데나리온 => “what a laborer might hope to earn in half a lifetime” (R. T. France, *The Gospel of Matthew*, 953).
-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=> 평생 쓸 수 있는 돈=> 달란트(Talent), 재능(God-given gifts/opportunities). 모두에게 주어졌다.
 - 동일한 행동서술: “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...”
 - 동일한 이익/: 2 배를 거둠
 - 동일한 칭찬: 1)“착하고 충성된 종”; 2) “작은 일에 충성했으니, 많은 것으로 맡김”; 3)“주인의 즐거움에 참여”
- “악하고 게으른 종”의 평가 (실은 ‘악하고 부지런한 종’이 더 나쁜데...)
 - 너 때문이야!
 - 자신의 달란트/재능/소명을 허비한 죄. 성공여부 문제가 아님 (doing wrong). 재능/소명을 쓰지 않음/시작도 안함(doing nothing)이 죄. 그 종의 달란트/달란트를 다른 이가 감당

C. 마지막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삶 (25:31-46)

- 예수가 모범
 - “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....”=> 단 7:13-14. 새로운 세상 도래. (주의! 문자적으로 인자가 내게/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님! 하느님께 오는/가는 것=> vindication)
 -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=> “하느님 나라”/천국. “상속한다?=> 마 5:5 (“온유한 자”가 상속. Q: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나? 힌트: 마태복음 5 장 참조)
 - 지극히 작은 자=> “주릴 때, 목마를 때, 나그네 되었을 때, 벗었을 때, 병들었을 때, 옥에 갇혔을 때”=> 마 5:3-6//사 61:1-3
- 정체성 문제
 -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음=> 몰 한 그릇. “제자의 이름”(마 10:42) // “그리스도의 이름”(막 9:41) => 어떤 그리스도? [보통 말하는 ‘왕된 그리스도’면, 설마 몰 한 그릇 대접 못하랴? 사과 껍질을 뒤 트렁크에 넣어주지...]
 - 하느님은 누구나 말한다. 그런데 누가 말하는 하느님인가? (예수)
 - 그리스도는 누구나 말한다.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? (예수가 그리스도다!)
 - 그리스도인은 많다. 그런데, 누가/어떤 그리스도인인가? (예수의 삶을 본받는 자!)

생각해 보기

1. 내 달란트는 무엇일까?
2. 내가 만나는 “가난한 자, ...”는?